

THE SOCIETY HOTEL BINGEN

WAECHTER ARCHITECTURE

Location Bingen, Washington, USA **Gross floor area** 1,858.06m² **Principal architect** Ben Waechter **Interior design** Alexis Kurland, Megan Blossom **Landscape design** Todd Blossom, Brittany Sastrawidjaya **Client** The Society Hotel **Photographer** Lara Swimmer, Sean O'Connor, Micah Cruver **Editor** Hyunkyung Goh, Jihui Choi



숲 속 오두막을 닮은 휴식처, 빙겐 더 소사이어티 호텔 숲 속 오두막이 동굴게 둘러싼 모습의 빙겐 더 소사이어티 호텔은 컬럼비아 강 협곡의 국립 경관지에 조성된 숙박시설이다. 이 건축물은 1908년에 지어지고 8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학교 건물을 재활용한 사례이기도 하다. 호텔은 총 20개의 개별 오두막 객실, 지붕이 덮인 산책로, 스파와 목욕탕 건물, 휴식처 공간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이 둘러싼 나무 오두막들은 주변 환경에 녹아들며, 아늑한 분위기를 풍긴다.

원형의 매스는 10개의 객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안쪽 마당에 24인을 수용할 수 있는 호스텔 건물이 있다. 머무르기 위한 공간 뿐만 아니라 도서관, 락커룸, 운동 시설 등 방문객을 위해 다양한 체험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호텔의 본관의 바닥은 모두 기존의 바닥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기존 교실의 바닥재를 이용하여 로비까지 통일된 바닥재를 사용하도록 만들었다. 원의 중심에는 새로 지은 스파와 목욕탕 건물이 있으며, 이는 해수 풀장, 사우나, 온탕, 냉탕, 카페가 있는 중앙 공용 공간을 이룬다. 새로운 구조물은 조속한 삼나무로 덮여 있으며, 객실 내부 침대 머리맡 벽은 8인치 은촉불임 송판, 바닥은 미장 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있다. 호텔 본관 밖, 예전 운동장이었던 자리 한 켠에는 독립된 오두막이 있는데, 이 독립된 오두막과 호텔 본관의 매스는 분리되어 있지만, 캔틸레버 지붕을 통해 두 공간이 이동을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만든다. 이 두 공간을 연결하는 곳은 방문객과 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포치이자, 공동 안뜰이다.

건축가는 호텔과 자연경관의 관계를 극대화함으로써 주변 환경에 타협하고 원형 오두막의 매스를 통해 주변 언덕과 강의 전망을 강조했는데, 방문객들은 가까이에서는 마당의 정원을, 멀리서는 풍경을 볼 수 있는 두 가지 전망을 누릴 수 있다. 스파와 목욕탕은 오두막과 유사한 재료로 구성된 볼륨감 있는 구조이며, 하나의 출입구를 피하고자 각 측면마다 개구부가 있다. 내부에는 4개의 대형 부두가 공동 공간을 형성하며 큰 채광창을 향해 적극적으로 확장되어 그 아래의 수영장에 빛을 흘려보낸다. 건물 구석에 자리한 안식처는 요가, 팀 빌딩 활동, 가족 모임 등 단체 방문객이 이벤트 및 휴양을 위해 예약할 수 있는 특별한 지하 건물이다. 이 공간은 동근 지붕과 안뜰 입구에서 남쪽을 향한 유리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 채광으로 가득하다. 과거의 공간과 자연을 적절히 활용하며 디자인적 연결은 방문객 경험을 높이고 연결시켜 사람들이 독특하면서도 존중받는 분위기에서 컬럼비아 강 협곡을 경험할 수 있는 휴식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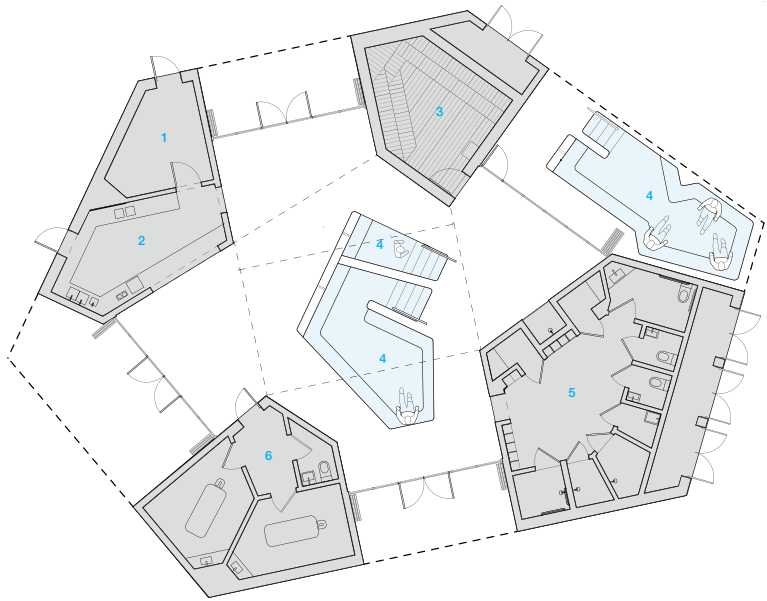


The Society Hotel Bingen is a new lodging and recreational destination for visitors seeking a refined, off-the-beaten-trail experience in the Columbia River Gorge National Scenic Area. Initiated in 2017, Society Hotel Bingen consists of five distinct yet related components across a multifaceted campus, including the adaptive reuse of a former school, twenty individual hotel cabins, a covered pathway, a spa and bathhouse building, and a sanctuary. Anchoring the retreat is the 80-year-old Bingen Schoolhouse, which was originally constructed in 1908, and was rebuilt in 1937 by the Civilian Conservation Corps. Sited near the riverfront within a residential setting, the main schoolhouse building offers 10 private standard rooms and two 24-bed hostels, as well as a library in the reception area, lockers in the hallway and a refurbished gym open to guest use. The floors are all original to the building and a combination of existing or salvaged from the former classrooms to get the entire lobby to match. Moving across the site to

the school's former playfields, Waechter Architecture's primary design intervention involves a series of individual cabins that form a ring, loosely defining the edge of the site. Although each unit is detached on the ground, they are united through a shared roof that cantilevers out to double as a covered walkway while creating porches and a shared courtyard, accessible to both visitors and local residents. At the center of the ring is a new spa and bathhouse building, which creates a central gather space with a shared saltwater soaking pool, sauna, hot tub, cold plunge and a café. The new structures are clad in premature aged cedar, with eight-inch tongue and groove knotty pine for the cabin interior headboard walls and troweled and sand finished concrete floors.

Waechter Architecture's approach negotiates the context by maximizing the hotel's relationship to the natural landscape and uses the massing of the new cabin ring to highlight the surrounding hillside and vi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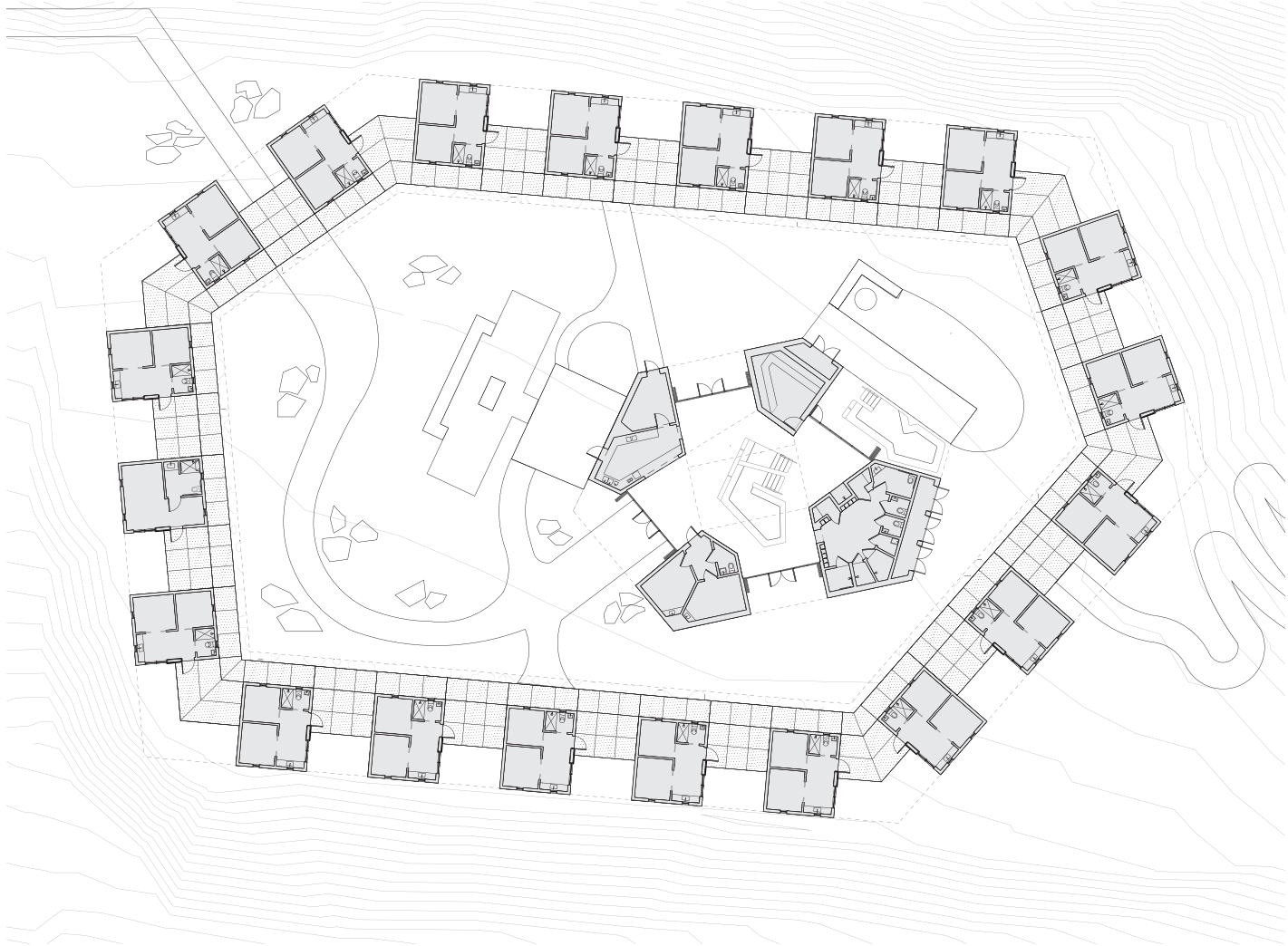
over the river. Visitors are presented with a double perspective - the close view of the courtyard's garden and the far view of the landscape - providing a sense of retreat, even in a town setting. The spa and bathhouse are a volumetric structure constructed of a similar material palette to the cabin ring with openings on each side to avoid having a singular entry point. Tucked in the corner of the property, the Sanctuary is a unique subterranean building that can be reserved for events and retreats or other groups of travelers for yoga, team-building activities or family gatherings. The space is flooded with natural light through a roof cupola and south-facing glass doors from the courtyard entry. Overall, the design's connection between historic and contemporary, the foreground and the background heighten and experientially links the visitor experience, clearly achieving the goals of creating a place for people to experience the Columbia River Gorge in a unique yet respectful setting.



SANCTUARY FLOOR PLAN



- 1 STORAGE
- 2 CAFE
- 3 SAUNA
- 4 POOL
- 5 CHANGING ROOM
- 6 THERAPY



1st FLOOR PLAN

Architecture and Culture magazine Interview
With Waechter Architecture

ABOUT “THE SOCIETY HOTEL BINGEN”

빙겐 더 소사이어티 호텔에 대하여

나무로 만든 오두막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것은 사람들에게 휴식을 준다. 이 호텔은 화재로 인해 손실된 학교가 재건되면서 보존되었던 공간으로, 배히터 아키텍처는 이 곳을 아늑한 분위기가 풍기는 휴식 레저 공간으로 바꾸었다. 호텔에서 나무는 주변 숲과 어울리는 마감재로 사용되어, 부드러운 텍스처로 휴식 공간의 분위기를 만든다. 건축가 벤 배히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나무라는 자재에서 얻을 수 있는 공간적 분위기에 대해 들어보았다.

Looking at nature in a wooden hut gives people a break. This place originally was a space that had been preserved as the school lost in the fire was rebuilt, and the Waechter architecture turned it into a relaxing leisure space with a cozy atmosphere. In hotels, wood is used as finishing materials to match the surrounding forests, creating an atmosphere of rest areas with soft textures. Through an interview with architect, we could heard about the spatial atmosphere that can be obtained from the materials of the wood.

이번 달 주제는 '목재:튼튼하고 부드러운 재료'다. 건축가의 시점에서 목재라는 건축 자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무 주위에 있는 것은 좋다. 사람들은 자연과 연결되기를 바라는 내재된 욕망을 갖고 있다. 건재로써 나무는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보통의 모든 건설 재료들 중에 나무는 유일하게 재생 가능한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나무라는 자재를 사용하고 설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었는가.

호텔은 경치가 좋고, 숨막힐 듯 한 바위투성이의 전경을 지닌 컬럼비아 강 협곡에 위치하고 있다. 재료와 좋은 쪽으로 강력한 이 전경 속에서 공존할 수 있으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법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했다. 모든 외부 표면들을 자연스럽게 마감된 삼나무로 덮는 것은 통일된 조치였으며, 전략이었다.

세계는 모두 환경 문제에 직면해있다. 나무라는 건축 재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을 지닌 대표 자재다. 현지 건축계에서 가지고 있는 목조 건축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한 노력이 행해지고 있는가.

미국 북서부는 삼림 관리와 목재 건축과 관련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아름답지만 무거운 목재 구조들은 이 지역의 초창기 시절을 특성 짓는다. 오래된 삼림이 물에 젖어 무거워질 수록, 환경적 경각심이 커지고, 경량 프레임 목재 건축이 표준이 되었다. 현지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흥분되었던 것은 대량 목재 건축이 얻은 가속도였다. 우리는 이제 이 지역이 보유한 기존의 무거운 목재 구조와 동일한 견고성과 아름다움을 지닌 목재 건물들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재생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이뤄낼 수 있다.

This month's issue is “Wood : strong and sentimental”. From an architect's viewpoint, what do you think about the material of wood?

Wood feels good to be around. People have an inherent desire to want to connect with nature. As a building material, wood offers this. Additionally, of all the common building materials wood is the only one that is renewable.

For this project, what did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designing and dealing with wood?

The hotel is located in the scenic Columbia River Gorge, which is a breathtaking and rugged landscape. It was important to select a material and method of deploying it that could coexist with this strong landscape in a positive way. Cladding all surfaces of the exterior is a unified treatment of naturally finished cedar was the strategy.

The world is all passionately interested in environmental issues and they agree that the building made by wood could make more sustainable. What is the perception of wooden buildings locally? Is the encouragement being made for it?

The Northwest United States has a long history of forestry and building with wood. Beautiful heavy timber structures characterize the early years of this region. As old growth forests became over logged and environmental awareness became greater, light frame wood construction became the norm. What has become locally exciting for us is the momentum that Mass Timber construction has gained. We can now build wooden buildings that have the same solidity and beauty the early heavy timber structures of this region had. And we can do this in a renewable and sustainable way.



WAECHTER ARCHITECTURE_BEN WAECHTER 건축가 벤 배히터(Ben Waechter)는 2007년, 포틀랜드에 배히터 아키텍처(Waechter Architecture)를 설립했다. 배히터 아키텍처는 건축설계, 공간, 재료, 건축 시스템이 조화를 이룰 때 좋은 건축물이 탄생한다고 생각하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개가 넘는 디자인 상을 수상하며 미국 최고의 신진 건축회사 중 하나로 떠올랐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 가구 제조업체인 블루닷의 새로운 쇼룸과 220채 규모의 저가 주택개발, 오리건 주 최초의 복합상업시설 등이 있다. 오리건 주의 복합상업시설은 오리건 주 최초로 가로벽 패널 목재를 사용하고 건설되고 있으며, 이 건물은 배히터 아키텍처의 새로운 사옥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www.waechterarchitecture.com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인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목조지와 온천을 둘러싸는 오두막 환 구조를 완성했을 때다. 우리는 이것이 하늘과 협곡에 작은 구멍과 같이 테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상상했다. 이것이 테두리를 만드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보람찼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더 많은 건설 비용이 있었다면 오두막의 내부를 우리가 온천 내부와 건물 외부에 한 것과 같이 목재로 덮었으면 더욱 이상적 이었을 것이다.

배히터 아키텍처의 건축 철학은 무엇인가. 이번 프로젝트에 이러한 건축 철학이 반영된 곳이 있다면 말해달라.

우리의 디자인 철학은 경험적 이해를 근본으로 한다. 우리는 사람들의 장소에 대한 경험을 고조시킬 수 있는 건물을 디자인하고 싶다. 우리는 가장 생생하고, 기억에 남고 궁극적으로 편안하게 느껴지는 장소가 강한 투명성의 감각을 지닌 장소라고 믿는다. 다양한 형태에서의 투명성은 우리의 작품에서 대단히 중요한 목표이다.

마지막으로 건축가로서 당신의 포부에 대해 말해달라. 배히터 아키텍처의 다음 목표는 무엇인가.

스튜디오으로써 우리의 열망은 궁극적인 투명성을 지닌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에 더욱 가까이 가는 것이다. 우리는 공간적 투명성, 구성적 투명성, 재료적 투명성 등을 잘 성공시켜왔다. 우리가 기존에 온전히 달성하지 못한 한 가지는 궁극적인 건설적 투명성을 갖춘 건축물이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이러한 목표에 가까이 가기 위해 우리만의 사무실 건물을 짓고 있다. 건물은 온전히 대량의 가문비나무 목재로 지어질 것이다. 많은 층들로 건설된 대부분의 건물들과 다르게, 이 건물은 단일 재료로 건설될 것이다. 이는 대량 목재로 완전하게 건설된 오리건의 첫 상업 건물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에 매우 기대하고 있다.

What is the most memorable experience you have had while working on it? After it was realized, do you have anything you would like to improve?

The most memorable moment was when the structure of the cabin ring that encircles the meadow and spa was complete. We had envisioned that it would frame the sky and Gorge like an aperture. It was very rewarding to see that it did just that. If the project had more construction budget it would have been ideal to clad the interior of the cabins with wood just as we did with the spa interior and exterior of the buildings.

What is an architectural philosophy of Waechter Architecture (or your personal)? And how did you apply the philosophy to this project?

Our design philosophy in rooted in experiential understanding. We want to design buildings that heighten ones experience of place. We believe the places that feel the most vivid, memorable and ultimately comforting are places with a strong sense of clarity. Clarity in all its many forms is an overarching goal in our work.

In conclusion, could you tell us about aspirations as an architect? What is Waechter Architecture's next step?

Our aspiration as a studio is to get closer and closer to designing builds with ultimate clarity. We have had success with spatial clarity, compositional clarity, material clarity etc. One thing that we have not previously fully achieved is a building with ultimate constructional clarity. However, we are currently building our own office building that will come closer to this goal. The building will be build completely out of spruce Mass Timber. Unlike most buildings that are built with many layers, this building is constructed out of a single material. It will be the first commercial building in Oregon to be built entirely out of Mass Timer. We are excited about this.